

# 三好達治의 詩의 形成

吳錫崙\*

## <要 旨>

본고는 三好達治의 詩의 形成을 고찰하고자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첫째는, 大正末期의 주요 詩史的 사건 중에서 堀口大學의 『월하의 일군』의 출판, 그리고 西脇順三郎의 英國에서의 歸國과 그 후의 문학활동이 昭和詩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서, 이들 두 사람과 함께 昭和를 대표하는 시인 達治와의 관련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그 당시의 시인으로 프롤레타리아 문학자로 알려진 中野重治도 처음에는 서정시를 썼는데, 그의 시와 達治의 시는 어떤 공통적 요소를 갖고 있었는지도 고찰하였다. 둘째는, 達治가 깊이 관여했던 同人雜誌 중에서 그의 시가 형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되는 『청공』과 『시와 시론』 두 잡지를 고찰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월하의 일군』을 탐독한 達治는 일본어를 프랑스어의 문맥 속에서 살려 시를 쓰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것은 그의 시의 형성에 커다란 토대를 제공했다는 사실에도 도달할 수 있었다. 초현실주의자였던 順三郎의 시에도 達治에게서 볼 수 있는 감각적이고 인상주의적인 시의 세계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達治도 그에게서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또 重治의 시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에서도 達治와 같은 서정미를 찾을 수 있었다.

達治가 참가한 두 동인잡지 중 『청공』은 그의 습작기 수준이라 할 수 있지만, 많은 명시들을 낳게 해 준 산파역할을 했으며, 梶井基次郎과 같은 문학자들과의 만남은 그의 훗날을 생각하면 매우 의미있는 일이었다. 또한 『시와 시론』은 오늘날의 시인 三好達治라는 시인의 명성이 최초의 결실을 보게 되는 잡지였고, 이를 통해 達治는 주지파 시인이라는 또 다른 그의 문학적 실험을 성공으로 이끌어 가게 된다.

키워드; 월하의 일군, 연가,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 청공, 시와 시론, 주지파

## 1. 들어가며

미요시 타쓰지(三好達治, 1900-1964)의 詩作活動의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1925년경(大正 14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達治가 처음으로 시를 발표했던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잡지 『청공(靑空)』이었으며, 1926년(大正 15년,昭和 원년)의 일이었다. 그야말로 昭和時代를 여는 시인으로서 그의 이름을 일본 시단에 드러내게 하는데, 이 때 발표한 작품이 「파리반의 영아(玻璃盤の嬰兒)」 「유모차(乳母車)」 「할머니(祖母)」 「단창(短唱)」 「물고기(魚)」의 5편이었다. 그 중 「파리반의 영아」는 三高時節에 쓴 작품이기 때문에, 1925년경을 그의 시적 출발이라고 잡는 것이다.<sup>1)</sup>

\* 동국대학교 강사. 일본근대문학.

그런데 1925년은 일본시단에 있어서는 중요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해이기도 하다. 즉 그것은 호리구치 다이가쿠(堀口大學)의 翻譯詩集인 『월하의 일군(月下の一群)』이 출판되었을 뿐만 아니라, 니시와키 준자부로(西脇順三郎)의 영국 런던에서의 귀국, 하기와라 코지로(萩原恭次郎)의 시집 『사형선고(死刑宣告)』의 출판, 詩話會 편 『메이지다이쇼시선(明治大正詩選)』, 기타하라 학슈(北原白秋)·미키 로후(三木露風) 편 『현대일본시선(現代日本詩選)』의 간행 등이 모두 1925년에 일어났다. 그야말로 昭和詩의 胎動을 꿈꾸는 많은 詩的 움직임이 昭和시단의 새벽을 알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본고는 제2장에서 達治의 시적 출발기였다고 보는 1925년경의 詩史的 사건들 중에서 堀口大學의 翻譯詩集 『월하의 일군』의 출판, 西脇順三郎의 영국 런던에서의 귀국이란 두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사실들이 昭和詩의 형성을 주도했다는 관점에서 파악함과 동시에 達治의 詩의 형성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達治의 시와는 어떤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이 시기를 전후하여 유행했던 프롤레타리아 시를 썼던 시인인 나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의 詩도 고찰의 대상이다. 重治는 達治와는 다른 성격의 시를 썼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의 초기 시는 서정성이 담긴 시와 프롤레타리아 시라는 두 가지 성향의 시가 공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도 達治처럼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이 大正末期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 그러한 사실이 그를 고찰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의 하나가 되었다. 이에 그의 초기 서정시가 達治의 시와는 어떤 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順三郎의 시와 重治의 시를, 達治의 시와 함께 비교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 선행연구가 없었다고 생각되지만, 이러한 작업은 達治가 시를 쓰기 시작했던 시기인 大正末期 시단의 흐름을 파악하고 昭和詩의 형성을 알고자 하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주된 목적은 그 당시의 達治의 詩의 形成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제3장에서는 達治 詩의 形成을 파악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그가 참가한 同人雜誌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와 관계 깊은 동인잡지는 『청공(靑空)』에서 시작하여 『시와 시론(詩と詩論)』 『시·현실(詩·現實)』 『사계(四季)』 『문학계(文學界)』 『원(苑)』 『문체(文體)』 등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청공』과 『시와 시론』 두 잡지에 대해서만 논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大正末期와 昭和初期에 그가 참가해서 시를 발표했던 잡지 중에서 가장 많은 시를 발표했던 것이 이 두 잡지일 뿐만 아니라, 詩史的으로도 중요한 흐름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잡지에 드러난 그의 시적 변화는 達治의 初期詩의 形成을 규명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리라 믿는다. 그 후에 그가 참가하여 문학적 활동을 했던 동인잡지는 後稿를 기약한다.

본고에서는 인명을 표기할 때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한글과 한자를 동시에 표기했으나, 두 번째 이후에는 한자 표기를 원칙으로 삼았으며, 작품명과 잡지명은 한글로 표기했다. 또한 본고에서 인용한 시는 원문을 게재하지 않고 번역시만을 실었음을 밝힌다.

## 2. 大正末期 詩壇의 흐름과 昭和詩의 形成

### - 達治의 詩와 관련하여

#### (1) 堀口大學의 『월하의 일군』 - 達治 詩의 形成에 중요한 바탕을 제공

三好達治에게 프랑스 시는 하나의 지킴서였다고 할 수 있다. 대학시절 처음으로 활자화시켜서 출판한 것이 보들레르의 산문시집 『파리의 우울(巴里の憂鬱)』이었고, 그가 번역한 프랑스 문학 관련 원고가 모두 2만 매를 넘었다는 사실<sup>2)</sup>도 그러하거니와, 그의 시인으로서의 명성을 결정짓는 첫 시집 『측량선(測量船)』에 수록된 詩 중에서도 프랑스 시인들의 영향 하에 쓰여진 시가 다수 포함

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미친 프랑스 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達治는 1925년에 출판된 堀口大學의 프랑스 譯詩集 『월하의 일군』을 탐독하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며, 이 영향은 후에 그의 시로써 나타나게 된다. 많은 평자들은 그의 시에 영향을 준 사람을 얘기할 때 하기와라 사쿠타로(萩原朔太郎)나 무로 사이세이(室生犀星)와 더불어 堀口大學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堀口大學의 譯詩集 『월하의 일군』은 출판되자마자 당시의 젊은 시인들에게 시를 어떻게 써야 할 지를 제시해주는 중요한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는데, 이 시집에 대해 “昭和詩壇의 지성적인 詩風을 여는 키(key)가 되었다”는 요시다 세이이치(吉田精一)의 평가<sup>3)</sup>나, “大正末期와 昭和初期에 프롤레타리아 시와 함께 이 역시집은 昭和詩를 형성하는 중요한 흐름의 하나가 되었는데, 즉 그것은 혁명지향의 예술과 예술혁명의 시행이 전개되는 그 당시에 이른바 昭和詩運動으로 불려지는 한 흐름의 시작”<sup>4)</sup>이라는 의미부여는 이 역시집의 의의를 말해주기에 충분하다.

이 책은 근대 프랑스의 보들레르와 같은 상징과 시인으로부터 아포리넬이나 자콥과 같은 현대시인들을 포함한 66명의 시인의 시 340편을 당시의 일본인들이 읽기 쉽게 부드러운 구어로 번역 소개해 놓은 그야말로 일본 최대의 역시집이었다.

그럼, 여기서 達治의 이 譯詩集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측량선』의 시 「향수(鄉愁)」<sup>5)</sup>를 보자.

나비같은 나의 향수!……. 나는 몇 개 울타리를 넘어, 오후의 거리에서 바다를 본다……. 나는 벽에서 바다를 듣는다……. 나는 책을 덮는다. 나는 벽에 기대다. 열방에서 두 시가 친다. 바다, 먼 바다여! 하고 나는 종이에 쓴다. -바다여 우리가 쓰는 문자에서는 너 속에 어머니가 있다. 그리고 어머니여, 프랑스 사람의 말에는 당신 속에 바다가 있다.<sup>6)</sup>

이 시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선 ‘향수’라는 추상적 느낌의 단어를 ‘나비’라는 작은 동물을 빌려 표현한 시인의 자질 같은 것이겠지만, 보다 주목해야 할 시 구절은 “바다여, 우리가 쓰는 문자에서는 너 속에 어머니가 있다. 그리고 어머니여, 프랑스 사람의 말에는 당신 속에 바다가 있다”라는 마지막 구절이다. 단순히 프랑스어를 안다고 해서 이렇게 기지 넘치는 시를 썼다는 측면이 아니라, 일본어를 프랑스어의 문맥 속에서 살리고자 연구하고 궁리한 흔적이 보인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sup>7)</sup>

이러한 사실은 大學가 『월하의 일군』을 펴낼 때에 수록한 시의 하나인 「귀(耳)」라는 시를 보면, 大學의 편집의도가 達治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내 귀는 조개 껍질(私の耳は貝の殻)/바다의 울림을 그리워한다(海の響をなつかしむ)”라는 이 시는 프랑스의 잔코쿠트의 시를 번역한 것으로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이 번역시를 읽었을 때의 達治는 벽찬 감정 같은 것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가슴속의 여운이 達治로 하여금 「향수」라는 시를 짓게 하였던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즉 大學가 『월하의 일군』을 편집할 때의 그 의도와, 앞에서 지적한 「향수」라는 시에서 達治가 썼던 표현은 일맥상통한다고 봐야 하는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達治가 1932년(昭和 7년)부터 3년여 동안 연속으로 펴낸 시집인 『남창집(南窓集)』 『한화집(閑花集)』 『산과집(山果集)』도 이 시집에서 받은 영향이 크다. 이 세 권의 시집의 큰 특징인 4행시는 프랑스 시인의 영향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시 일본에서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4행시를 達治는 과감하게 시도했다는 사실이며, 또한 자신만의 시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높은 실험정신인데, 이러한 바탕을 제공해 준 『월하의 일군』은 達治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한 존재였음이 분명하다.

## (2) 西脇順三郎의 歸國 - 超現實主義의 정착과 大正詩壇의 붕괴

1925년(大正 14년) 11월, 昭和詩의 형성에 커다란 업적을 남기는 한 사람이 영국런던에서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그는 다름 아닌 니시와키 준자부로(西脇順三郎, 1894-1982)였다. 새로운 서구의 문학을 직접 체험하고 돌아온 그에 대한 당시 문학청년들의 관심은 일본의 시를 서구적인 시들과 同時性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물론 이러한 욕구는 후에 잡지 『시와 시론』을 통해 구체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sup>8)</sup>

당시 達治도 이 때가 시적 출발을 보였던 시기였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한 대로이다. 그러나 昭和詩의 형성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두 시인의 출발은 시적 경향에서 보자면 분명 이질 이 것이 었다. 즉 서구에서 모더니즘 이론을 익히고 그러한 경향의 시를 썼던 順三郎과 大正詩壇의 感情詩派의 영향이 짙은 시를 쓰고 있었던 보수적 서정시인 達治는 서로 다른 지점에서 시인으로서의 출발을 했다는 사실이다.

順三郎은 『초현실주의시론(超現實主義詩論)』(출판은 1929년,昭和 4년)에서 그의 詩論에 있어서 의 知性의 기능에 대한 위치부여를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西脇는, 우선 작품을 만드는 것은 물질세계와 같은 리얼리티를 가진, 그 자체 독립된 하나의 사고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정서가 아니라 사고의 표현이라는 것에 우선 주지적 特長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사고의 세계는 논리, 의미, 상징성 등을 배제한, 실감, 경험의식 제로의, 자아도 소멸한 투명한 감각이다. (중략) 실감이 없는 투명한 느낌이 시이며, 방법적으로는 連想을 깨트림으로써, 시를 순수의식의 세계를 만드는 메카니즘 그 자체로 삼는 것이다.<sup>9)</sup>

이처럼 大正末期부터 順三郎은 스스로의 시적 사고와 방법에 대한 긍지를 갖고서, 昭和詩壇을 이끌어갈 모더니즘의 이론적 지도자로 등장하게 된다. 당시로서는 진보된 사고를 가진 그였기에, 그의 일본으로의 귀국을 전후로 하여 나타난 『청기사(靑奇士)』 『아(亞)』 등 주지파 계통의 시 잡지의 등장은 昭和詩의 흐름을 예고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청공』을 중심으로 시를 썼던 達治와, 『여마(驢馬)』의 호리 타쓰오(堀辰雄)와 같은 시인의 등장, 萩原恭次郎의 시집 『사형선고』의 출판, 詩話會의 해체와 『일본시인(日本詩人)』의 폐간 등으로 이어지는 사건으로 이미 大正詩壇은 붕괴해 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분위기를 안고 태동하는 昭和詩도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는데, 당시의 昭和詩나 昭和文學에 부여된 과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그것은 주지파의 시나 프롤레타리아의 시가 과거의 자연주의 문학에 대한 해체와 차세대 문학의 창조란 점에서 궤를 같이 하나, 두 파는 사상적, 정치적 이념상으로 대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연주의 문학이념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대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르키시즘 이론과의 대결이라는 두 개의 과제가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다.<sup>10)</sup>

결과적으로는 順三郎의 초현실주의 문학이론이 강하게 일본시단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필자가 관심을 가져 볼만한 것은, 비록 順三郎과 達治가 시의 세계에 있어서는 서로 상반된 세계를 지향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시에도 공통분모가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두 사람은 『시와 시론』에서 같은 동인으로서 문학적 동거를 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대로이지만, 여기서는 그들의 시를 통해 관련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달 불빛이 비치는 사과가  
풀숲에 구를 때에  
아직 얇게 깔린 눈(雪)에 남은 발자국에  
그 사라져 가는 것을 본다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는 때야말로

깊게 생각하고 있다

이 시는 얼핏 봐서는 達治의 서정시의 한 편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풀숲에 굴러가는 사과, 그 사과에는 달빛이 머물러 있다. 그리고 달빛은 사과와 함께 얇게 쌓인 눈을 비추면서 사람이 남긴 발자국에 머무른다. 사과의 進行이 멈추자 달빛도 멈추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의 냄새가 배인 발자국이 있다. 시는 그때까지의 감각적이고 印象主義的인 흐름을 멈추고, 사색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는 때야말로/ 깊이 생각하고 있다” 라고.

이 시는 「연가(戀歌)」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그 시의 한 부분이다. 과연 이 시가 초현실주의 이론을 주창한 順三郎의 시일까 하는 의심도 불러일으킨다. 상징성을 배제하고 투명한 감각만으로 구성된 시인가 하는 의문이 그렇다. 물론 이 시가 戰後에 발표된 시이기 때문에 順三郎의 시적 세계가 약간의 변화를 가져왔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분명한 것은 그의 시에도 達治와 같은 감각적이고 印象主義的인 시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sup>11)</sup> 이 시와 유사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達治의 시는 많이 있겠지만 다음의 시를 통해 그 유사성을 확인해 보자.

가을은 완전히 낙엽이 되어 그 선명한 반사가 숲의 저녁을 밝게 물들이고 있다. 나는 파란 시대를 사이에 두고 한 소녀가 갈대 사이의 좁은 길로 꺾어져 가는 것을 본다. 거기에서 그녀는 활짝 까만 양산을 편다. 나는 시대를 따라 간다. 나는 다리 옆에 선다. (중략) 이제 나의 산책이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일까.

『측량선』에 수록된 達治의 시 「낙엽(落葉)」이다. 숲의 저녁을 물들이는 가을이 감각적이며 선명한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앞의 시 「연가」와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으로 이어진다. 시적 화자는 소녀를 보면서 시대를 따라간다. 거기에 다리가 있다. 대자연 속에서 사람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거기에 시적 화자는 멈추어 서서 생각에 잠기고 있다. “나의 산책이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일까” 하고. 이 시의 제목인 낙엽과 시의 내용에서 보자면 오히려 앞의 시 「연가」보다 훨씬 선명하고 구체적이다. 모든 시적 분위기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않지만, 이 두 시를 통해서 보면 두 시인의 시가 서로 이질적이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昭和詩壇에서 서로는 양극단의 세계에 서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시 세계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하겠다.

### (3) 中野重治- 達治와 같은 抒情적인 테마를 노래함

나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 1902-1979)는 프롤레타리아 시를 대표하는 시인이다. 그의 문학적 재능은 시뿐만 아니라, 평론, 수필, 소설 등 다양하여 실로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도 문학적 출발이라 할 수 있는 大正末期에서 昭和初期에는 시인으로 출발하였으며, 그것도 서정시인으로 서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시도 썼다. 오늘날 그도 昭和시대를 대표하는 중요한 시인의 한 사람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야마모토 켄키치(山本健吉)는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한다.

昭和시대의 시의 지주로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 이부세 마사지(井伏鱒二), 이시카와 준(石川淳), 고바야시히데오(小林秀雄) 씨 등과 함께 中野重治 씨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반드시 그들이 시를 썼기 때문만은 아니다. 中野씨는 그 시와 산문을 포함해, 즉 소설도 에세이도 평론도 모두다 시인이다. 아니 그 정치적 행동도 포함해, 시인-혁명가라는 등식에 있어서 그의 모든 존재를 들어 시인인 것이다.<sup>12)</sup>

이 평가는 시인의 한 사람으로 또한 정치적인 조직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의 힘든 인생이 느껴짐과 동시에 그의 존재는 단순히 시라는 영역을 초월한 시인이라는 사실에 접근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필자는 重治의 이런 삶 속에 시인으로서의 출발기인 大正末期와 昭和初期에 大正期の '感情詩派' 류의 시를 썼던 그의 시가,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같은 경향의 시를 쓰고 있었던 達治의 시와 어떤 점에서 관련이 있는 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후이여 안녕  
금이여 안녕  
너희들은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品川驛)에서 기차를 탄다

李여 안녕  
또 한 사람의 李여 안녕  
너희들은 너희들 부모의 나라로 돌아간다

너희 나라의 강물은 추운 거울에 울고  
너희 반역하는 마음은 이별의 한 순간에 언다

바다는 석양빛 속에 그 울음소리 드높이고  
비둘기는 비에 젖어 차고 지붕에서 날아서 내려온다

너희들은 비에 젖어서 너희들을 쫓는 일본천황을 떠올린다  
너희들은 비에 젖어서 수염 안경 새우등의 그를 떠올린다

내리 퍼붓는 빗속에서 녹색 시그널은 켜지고  
내리 퍼붓는 빗속에서 너희들의 눈동자는 날카롭다

비는 자갈들에 퍼붓고 어두운 바다의 얼굴 위에 꽃힌다  
비는 너희 뜨거운 뺨 위에 스러진다  
너희들의 검은 그림자는 개찰구를 지나가고  
너희들의 하얀 두루마기는 플랫폼의 어둠에 펼쳐진다

시그널은 색이 바뀌고  
너희들은 차에 오른다

너희들은 떠난다  
너희들은 사라진다

안녕 후  
안녕 金  
안녕 李  
안녕 여자인 李

가서 그 딱딱하고 두껍고 매끄러운 얼음을 두들겨 깨라  
오랫동안 간혀 있던 물을 풀어 흐르게 하라  
일본 프롤레타리아의 뒤 방패 앞 방패  
안녕  
복수의 환희에 울며 웃는 그 날까지 <sup>13)</sup>

1928년경에 쓰여진 시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雨の降る品川驛)」은 당시 일본 공산당원이었던 李北鳴 일행이 국외로 추방당하자 그들을 송별하면서 쓴 유명한 시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시를

접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이 시가 마르크스주의적 계급사상 같은 것을 머금고는 있으나, 그 바탕에 흐르고 있는 것은 역시 서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4연의 “바다는 석양 빛 속에 그 울음소리 드높이고/ 비둘기는 비에 젖어 차고 지붕에서 날아서 내려온다”와 같은 표현이나, 7연의 “비는 자갈돌 위에 퍼붓고 어두운 바다의 얼굴 위에 꽃힌다/ 비는 너희 뜨거운 땀 위에 스러진다”와 같은 표현은 이 시를 서정시라고 평가함에 있어서 머뭇거릴 수 없게 하는 대목이다. 그리고 8연의 “너희들의 하얀 두루마기는 플랫폼의 어둠에 필력이다”는 서정시만이 갖는 매력이다.

따라서 이 시에 대해서 이토 신키치(伊藤信吉)는 “昭和 抒情詩의 걸작”이라고 했으며,<sup>14)</sup> “中野重治의 시인으로서의 업적은 자연발생적으로 쓰여진 초기의 서정시든, 목적의식으로 쓰여진 프롤레타리아 시든 본질적으로 서정시”라고 하는 주장<sup>15)</sup>에는 자연스런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생각한다. 이 시를 達治와 같은 시인에게서 볼 수 있는 서정적인 테마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 감동적이라고 한 주장<sup>16)</sup>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비슷한 시기에 두 시인은 시적 경향에서 비슷한 시 세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그의 시 「밤이 조용하기에」와 같은 시는 현대 서정시를 읽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4연, 5연의 “밤에 목욕한 탕으로 도드라진 불에 가없는 흥조를 띠고/ 입을 벌린 채 잠들어 있다”나 마지막 부분인 “마당귀를 지나가는 저건 바람이다/이제 이틀이면 또 설날이다/아들아/오늘밤쯤은/ 그 어리석은 기억을 조금쯤은 달래주려마”와 같은 표현은 서정시로서 가슴 한 구석에 간직해야 할 시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 3. 達治와 同人雜誌

#### (1) 『청공』 - 達治 詩의 産婆役割

三好達治의 문학적 출발을 얘기하면서 『청공』을 살피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정도로 이 동인잡지는 達治에게는 남다른 존재<sup>17)</sup>였다. 오늘날 그가 시인으로서의 명성을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집이 『측량선』이라는 평가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청공』은 가지이 모토지로(梶井基次郎), 나카타니 타카오(中谷孝雄), 도노무라 시게루(外村茂), 고바야시 카오루(小林馨) 등三高 출신의 東京大 재학생이 주축이 된 동인잡지로 1925년 1월 창간되지만, 達治는 창간 다음해인 1926년 6월부터 참가하여 제2권 제6호에서 終刊까지 무려 28편의 시를 발표하게 된다. 그야말로 그의 초기 시 활동의 産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측량선』에 실린 시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유모차」 「돌 위(鰐のうへ)」 「눈(雪)」 「소년(少年)」 「사슴(鹿)」 「메아리(飮)」 등의 시가 이 잡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그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서구의 전위예술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었던 그 시절에 그는三高時節에 즐겨 읽었던 萩原朔太郎의 『달에게 짓는다(月に吠える)』 『순정소곡집(純情小曲集)』이나 室生犀星의 『고려의 꽃(高麗の花)』 등의 시집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때이므로, 그의 초기 시는 大正時代의 感情詩派의 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확인하고 가야 할 사항은 당시의 그의 詩가 외형적으로는 점차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산문시의 선택이었다. 본고에서는 그의 『청공』 시절의 산문시에 국한시켜 작품을 보고자 한다.

저녁이 사방에 쌓이고, 파란 세계 지도 같은 구름이 지평에 드리워져 있었다. 풀잎에만 바람이 불고 있는 평야 속에서, 그는 큰 소리로 어머니를 부르고 있었다.

거리에서는 그의 얼굴이 어머니와 많이 닮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웃었다. 낚시바늘처럼 등을 구부리고,

어머니는 점점 어느 쪽으로 그 발자국을 잊고 있었던 것일까. 저녁에 뜬 하얀 길 위를, 그 멀리로 그는 큰 소리로 어머니를 부르고 있었다.

조용히 그의 귀에 들려온 것은, 그것은 메아리가 된 그의 커다란 목소리였을까, 또는 멀리서, 어머니가 그 어머니를 부르고 있는 커다란 목소리였을까.

저녁이 사방에 쌓이고, 파란 구름이 지평에 드리워져 있었다.

「메아리」의 전문이다. 達治는 출생 때 부터 초등학교 시절 동안에 오사카(大阪) 시내에서 무려 10번 가까이나 이사를 되풀이해야 했고, 6세 때는 부모를 떠나 다른 집의 양자로, 7세 때는 할머니에게 맡겨졌다가, 11세가 되어 부모의 곁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다가 15세 때 다시 부모 곁을 떠나는 등 그의 유소년기 및 청년기 때의 삶은 떠돌이의 생활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의 發想은 그의 유소년기의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에서의 감동은 우선 ‘어머니’라는 시어가 「메아리」라는 제목과 호흡이 일치되어 흐르고 있다는 점에 있으며, 또한 시인의 시적 구성능력이 자연스럽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시적 구성능력이 자연스럽다는 것은 1연의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배경묘사인 “저녁이 사방에 쌓이고, 파란 세계 지도 같은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는 표현이 마지막 연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 과정까지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메아리’라는 다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시어로써 표현해내는데 성공했기에 가능하다.

즉 1연에서는 자연스럽게 공간을 제시해 주고, 그 ‘평야’ 속에서 어머니를 부르고 있다. 거기에는 이미 메아리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는 계속 ‘거리’를 지나 또 “어느 쪽으로 가고”, “저녁에 뜬 하얀 길 위”로 이어진다. 그 이어지는 지점인 거리에서 시적 화자는 “어머니와 닮았다”고 하며 스스로를 위로 받는다. 시선이 옮겨지는 곳마다 메아리는 이어지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더 애뜻하다. “뉘시바늘처럼 등을 구부린”이란 것은 시간이 경과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점점 더 늙어 버린 어머니를 나타내기엔, 시적 화자는 여전히 큰소리로 어머니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3연에서는 이미 시적 화자의 메아리가 눈에 보이는 可視적인 메아리가 아니었음을 토로하면서 어머니를 찾는 애뜻함을 할머니에게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시인 達治의 시적 공간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 걸쳐 자연스럽게 확보되고 있는 것이다. 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저녁이 되어 파란 세계지도처럼 보이는 것은 시인에게는 또 하나의 메아리처럼 다가올 것이다.

이 밖에도 「마을(村)」(1927년 6월, 제3권 제6호에 발표, “사슴은 뿔에 삼꾼이 묶여진 채, 어두운 헛간 오두막집에 놓여져 있었다...” )와 같은 시도 達治만의 개성적인 시 세계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우수한 詩들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청공』의 중심적 존재였던 中谷孝雄는 그의 저서 『梶井基次郎』(1961년, 筑摩書房)에서 “잡지 『청공』 그 자체는 梶井 한 사람을 문단에 내보낸 것뿐이며, 문학사적으로는 아무 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평가<sup>18)</sup>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청공』은 昭和를 대표하는 시인 達治에게 명시를 낳게 해 준 産婆역할을 했으며, 그것은 문학사적으로 昭和詩를 형성하는 커다란 흐름이 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達治에게 있어서 『청공』의 역할은, 그와 같이 동인활동을 했던 梶井나 北川와 같은 문학의 빛을 만나게 해주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평가는 훗날의 達治를 생각하면 매우 의미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 (2) 『시와 시론』 - 주지파 시인 達治, 그리고 문학적 결실

『청공』을 비롯하여 그는 또 다른 잡지 『아』(기타가와 후유히코(北川冬彦), 안자이 후유에(安西冬衛) 등이 중심, 1924년 11월- 1927년 12월)와 『모밀잣밤나무(椎の木)』(모모다 소지(百田宗

治) 주재, 제1차 1926년 10월을 시작으로 3차인 1934년 10월까지 참가하며 4차는 達治가 참가하지 않음) 등 여러 잡지의 동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아』에서는 達治가 「추야농필(秋夜弄筆)」 등 3편의 시를 발표하며, 『모밀갓밤나무』에서도 「가을(秋)」 「소식(消息)」 「여자(女)」 등의 시를 발표하지만,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達治에게 있어서 문학적인 평가가 결실을 맺는 동인잡지인 『시와 시론』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시와 시론』은 1928년 9월, 하루야마 유키오(春山行夫), 三好達治, 北川冬彦, 우에다 토시오(上田敏雄), 安西冬衛 등을 중심으로 창간호를 내게 되는데, 편집자인 春山行夫는 그 후기에 이 잡지의 성격에 대해서, “舊 詩壇의 無詩學的 독재를 타파하고, 오늘날의 시를 정당하게 나타내하고자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sup>19)</sup> 그가 말하는 舊 詩壇이라는 것은 물론 民衆詩派와 거기에 대립하던 萩原朔太郎, 室生犀星과 같은 感情詩派 양쪽을 가리킨다. 『시와 시론』은 이들에 대한 비판을 가하며, 또 한편으로는 자콕, 브루튼, T·S 엘리엇, 조이스와 같은 서구의 20세기 문학을 소개하고 번역<sup>20)</sup>하여 昭和文學의 형성에 커다란 역할을 하며, 일본근대시로 가는 길을 개척하게 된다.

따라서 이 잡지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新詩精神’(에스프리 누보)이었으며, “결론의 중시, 지적 구성의 존중, 감각의 참신한 비약, 추상적 이미지의 시각적 형상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sup>21)</sup>”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 이러한 지성을 중시하는 성격의 동인지를 거쳐간 시인의 한 사람인 達治는 『시와 시론』에서 어떻게 자신의 시 세계를 펼쳤을까 하는 것은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것은 達治가 그때까지도 보수적 스타일의 시를 써왔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가 후년에 보여 주었던 詩風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그가 『시와 시론』 제5책(1929년 9월)에 발표한 작품의 하나인 「아베마리아」는 다음과 같은 시이다.

거울에 비치는 이 새(新) 여름모자. 숲에 매미가 울고 있다. 나는 의자에 앉는다. 내 신은 새것이다. 바다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기차를 탈것이다, 밤이 오면.  
나는 산을 넘을 것이다, 동이 트면.

나는 무엇을 볼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생각할까.

정말로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창에 핀 달리아. 창에서 들어오는 나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구름, 높은 구름

구름은 바람에 보내지고  
나는 계절에 보내지고,

나는 개를 부른다. 나는 휘파람을 불어, 나무 그늘에 늘어져 있는 개를 부른다. 나는 개의 손을 잡는다. 자키여, 부부루여, 자, 이렇게, 매미는 어디에고 울고 있다.

나는 서둘러 십자가를 자른다,  
낙엽이 쌓인 가슴의, 작은 길 안쪽에.

아베마리아 마리아 넘  
밤이 오면 나는 기차를 탈 겁니다.  
나는 어디로 갈 겁니다.

내 손수건은 새 거.  
게다가 내 눈물은 이 오래 된 거.

--한번 더 만날 날은 없을까  
--한번 더 만날 날은 없을 거야.

그리고 여행을 떠나면, 모르는 사람만 보고, 모르는 바다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만나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구어 산문시로 된 이 시를 접하면서 다음의 몇 가지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냉철한 이성이 시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 깔끔하면서도 선명한 시각적 형상화, 그리고 과거의 시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또 다른 시적 구성 방법이 새롭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시적 구성방법이 새롭다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즉, 이 시는 처음 1연에서 산문시의 형식을 빌려 시작하다가, 다시 2, 3, 4 연에서는 행 나눔 시로 바뀐다. 그리고는 또 다시 5연에서 산문시의 형식을 취하고, 6연에서는 행을 나누고, 7연에서는 또 산문시의 형식으로 돌아와서는 8, 9, 10, 11연에서는 행 나눔 시로 바뀐다. 그리고 마지막 연은 처음 1연과 마찬가지로 산문시의 형식으로 끝내고 있다. 이처럼 의식적으로 연을 구성하는 새로운 시도는 그 이전에 그가 취해 왔던 형태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산문시면 산문시, 운문시면 운문시라는 일정한 틀을 벗어난 새로운 시도였던 것이다.

내용면에서도 “거울에 비치는”으로 시작하는 시가 4연의 “정말로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로 이어지는 전개과정은 20세기 후반에 쓰여진 현대시를 읽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 불과 몇 해 전에 그가 썼던 「돌 위」나 「유모차」와 같은 시와 비교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시적 성장이었다. 5연의 “창에 핀 달리아. 창에서 들어오는 나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구름, 높은 구름”과 6연의 “나는 개의 손을 잡는다. 매미는 어디에서고 울고 있다”와 같은 선명한 시각적 형상화는 이미 성숙한 시인의 모습이었으며, 『시와 시론』 동인지가 표방했던 것과 이질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시는 비단 「아베마리아」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이 잡지에 발표한 시로, 풀 위에서 만난 사람과 자연의 결합이 차분한 이성으로 그려진 「풀 위(草の上)」나, 제 4책에 발표한 ‘지나간 어린 시절’이라는 뜻의 「Enfance fine」(1929년 6월)과 같은 시는 이미 達治가 주지과의 시인이자 동시에 昭和詩壇의 주류를 형성하는 한 사람임이 드러나는 것이었다. 특히 제6책에 발표한 시(1929년 12월) 「꿩(雉)」 「낙엽」 「나는(僕は)」 「까마귀(鴉)」 「새소리(鳥語)」 등은 모두 그의 첫 시집 『측량선』에 실리게 되어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다.

이처럼 達治는 『시와 시론』에서 『청공』 이후 가장 많은 시를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에세이, 번역시<sup>22)</sup> 등을 발표하여 왕성한 동인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곧 그가 昭和詩壇에 빨리 적응해 갔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으며, 그러한 그의 활동으로 시인 達治에 대한 평가는 詩壇적으로 文壇적으로 가장 알찬 결실을 맺게 된다. 여기에 그가 이 잡지에 참가한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시의 그는 오히려 전위적인 시인으로 여겨지고 있었으며, 일본시의 근대적 혁명의 戰列의 선수였고, 당시 청년들의 눈에는 분명 그러한 존재로서 達治의 이름이 비쳐지고 있었다”는 평가<sup>23)</sup>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 4. 맺는 말

堀口大學와 西脇順三郎 이들 두 사람은 1925년 각각 西歐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고국 일본으로 돌아와 문학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역시 이 시기를 전후하여 詩作 활동을 시작한 三好達治는 이들과 함께 昭和詩를 형성하는 중심인물이 되는데, 그의 시가 형성되는데 영향을 준 것 가운데는 大

學의 역시집 『월하의 일군』을 빼 놓을 수 없다. 그런 영향으로 볼 수 있는 시 「향수」는, 단순히 機智가 넘치는 시라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일본어를 프랑스어의 문맥 속에서 살려냈다는 점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 당시 일본의 전위예술의 한 흐름인 초현실주의이론에 대해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順三郎은 주지파 계통의 시나 시론을 많이 썼던 사람이지만,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의 시에도 達治와 같은 감각적이고 印象主義的 詩風의 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시 「연가」와 達治의 시 「낙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達治의 시의 형성에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성을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昭和時代의 문학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흔히 프롤레타리아 문학자로 알려져 있는 中野重治도 처음에는 達治와 같은 시기에 시로써 출발했는데, 한국인과의 관계가 있는 시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과 같은 명시도 서정시인 達治에게서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은 서정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昭和시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인 順三郎, 重治, 達治 이들 세 사람은 각각의 개성적인 색깔로 昭和시단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지만, 이들 세 사람의 시에는 공통분모라 할 수 있는 서정 짙은 시, 선명한 이미지의 시가 존재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昭和초기가 達治의 詩의 形成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詩歷에서 보았을 때 그의 첫 시집 『측량선』이 출판된다는 사실이며, 이 시집에 실린 시들의 상당수는 그가 참가했던 동인잡지 『청공』과 『시와 시론』에 발표했던 시들이었다.

『청공』은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達治에게 중요한 존재였다고 할 수 있는데, 첫째, 「유모차」 「마을」 「눈」 「돌 위」 등 많은 명시를 낳게 해 준 산과역할을 하는 잡지였다. 둘째, 처음으로 達治가 산문시라는 새로운 시적 양식을 시도해 보았다는 점인데, 단순한 흥내가 아니라, 그런 시들 속에는 達治만의 개성이 배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이 잡지에 동인으로 참가함으로써 梶井基次郎나 北川冬彦와 같은 문학자들과 같이 호흡을 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뒷날의 達治에게는 많은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기에 그 의의는 크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의 達治의 시는 전체 詩歷에서 보거나 시적 완성도에서 보면, 습작기 수준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와 시론』이 達治에게서 갖는 의미는 먼저, 『청공』 이후 가장 많은 시를 씀으로써 多作하는 시인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 양적인 면에서의 중요성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왕성한 동인활동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그는 시의 양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시를 쓰게 된다. 이 잡지에 발표한 시 「아베마리아」에서 보았듯이, 보수적 서정주의적 경향이었던 그의 시는, 새로운 시적 구성방법 및 선명한 시각적 형상화와 더불어 냉철한 이성이 그의 시의 바탕에 흐르는 과감한 시적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 그 결과 詩壇에서 文壇에서 ‘주지파 시인 三好達治’라는 새로운 자리매김을 하게 됨은 물론이거니와 昭和 詩壇의 주류의 한 사람으로 문학적 결실을 맺게 되는 순간이었다.

## (註)

- 1) 흔히 大正末期의 시와 昭和初期의 시를 정확하게 구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본고에서는 통상적인 시대분류법에 따라 생각했으며, 達治의 경우도 흔히들 그의 詩歷을 40년여라고 하는 것은, 1925년(大正 14년경, 그의 나이 24세)부터 그가 죽은 해인 1964년(昭和 39년, 그의 나이 64세)까지의 기간을 일컫는다고 본 것이다.
- 2) 그의 연보 참조. 이하 그의 연보는 現代詩 讀本 『三好達治』 思潮社 1985년 pp.255-264 참조했음.
- 3) 三好行雄·竹盛天雄 編, 『近代文學9 現代の詩歌』, 有斐閣, 昭和52년 p.26.
- 4) 『日本文學新史』 <現代> 至文堂 平成3년 p.290.
- 5) 본고에 실린 三好達治의 시는 『堀辰雄·三好達治集』(現代日本文學大系64 筑摩書房 昭和

44년)을 텍스트로 삼았음.

6) <海>라고 하는 글자가 <母>라는 글자를 포함하고 있고, <mere(불어로 어머니란 뜻)>라는 철자는 <mer(불어로 바다라는 뜻)>라는 철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쓴 시이다

7) 大學도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월하의 일군』을 출판했기에, 종래의 번역시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原詩의 發想法이, 일본어에 도입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것은 곧 일본어 표현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達治에게 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인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신선함으로 다가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8) 大正末期에서 昭和初期에 걸쳐서 잇달아 발행되었던 시동인지 『청기사(靑騎士)』 『아』 『문예 탐미(文藝耽美)』 『장미·마술·학설(薔薇·魔術·學說)』 등에서 전위적 성향의 시를 썼던 春山行夫의 『시와 시론』에 모이게 되는 것을 말함.

9) 註3)번의 책 pp.31-32 재인용

10) 小川和佑 『三好達治研究』 教育出版センター 昭和 51年 p.131 참조.

11) 小川和佑도 앞의 책 p.135에서 이 시에 대해서 達治가 順三郎의이고, 順三郎가 達治的이라는 착각을 일으킨다고 얘기하고 있다.

12) 註 3)번의 책 pp.57-58 재인용

13) 吳英珍 編著 『日本現代詩』 성학사 1988 p.150

14) ドナルド・キーン 『日本文學史』 近代 現代篇7 中央公論社 1992,3 p.301 재인용

15) 註 3)번의 책 p.63.

16) 註14)번의 책 p.296.

17) 『청공』과 達治와 관련된 상세한 자료로는 1. 安田保雄 「『靑空』時代の三好達治 - 『測量船』研究序説-鶴見女子大學紀要 第1號 昭和38年 2. 平林英子 『靑空の人人』 昭和 44年,12 皆美社 와, 3. 註10)번의 책 pp.140-151을 참고하기 바람.

18) 註 10)번의 책 p.142 재인용

19) 小田切進 『現代日本文藝總覽 中卷』 大空社 平成4年 p.117

20) 모더니스트였던 春山行夫는 「日本近代象徴主義詩の終焉-萩原朔太郎, 佐藤一英 兩氏の象徴主義詩を檢討す」를 발표하면서 구 시단에 대한 강한 반발을 나타내었고, 西脇順三郎는 「超自然詩學派」를, 北川冬彦는 「マックス・ジャコブの散文詩論」을 발표하는 등 확실한 大正詩壇과의 차별을 보여 주게 된다.

21) 주 3)번의 책 p. 27

22) 達治는 『시와 시론』 제3책(1928년)에 보들레르의 산문시 『파리의 우울』을 抄譯하고 있다.

23) 주 3)번의 책 p. 92

## (參考文獻)

- 吳英珍 編著 『日本現代詩』 성학사 1988  
『堀辰雄 三好達治 集』 現代日本文學大系64 筑摩書房 昭44年  
『現代詩讀本 三好達治』 思潮社 1985  
三好行雄 竹盛天雄 編 『近代文學9 現代の詩歌』 有斐閣 昭52  
『日本文學新史 現代』 至文堂 平成3年  
ドナルド・キーン 『日本文學史 近代 現代篇七』 中央公論社 1992.  
『日本文學全史6 現代』 學燈社 平成10年  
小田切進 『現代日本文藝總覽 中卷』 大空社 平成4年  
小川和佑 『三好達治研究』 教育出版センター 昭51

## The formation of the MIYOSI TATSUZI

O, Sug-yoon

With publishing four poems, 「baby carriage」 at the 『AOJORA』 (The blue sky)-Poem magazine, MIYOSITATSUZI exposed his name to the SYOWA and published his great poems at the early period of SYOWA.

『AOJORA』 made him to be famous and as considering about his poems, in this period he was influenced by TAISYO, Conservative lyric poem, However prose poem, Echo of poem made sure his possibility as a poet.

After participating in 『SITOSIRON』 (The poem and theory of poem)-Poem magazine, he was evaluated as a major one of the world of poetry SYOWA. At this magazine, party of surrealists, he published 「Abe maria」 「Enfance fine」 as one of the general purport.

His early poem were mostly published in these two magazines which had different inclination, but he made various experiences through them.

His first anthology 『SOKURYOSEN』 was evaluated that it doesn't have various and unified poetic mode. Exactly there was connection with party which he participated in. However it continued as a poetic experiment and made him as a great poet who represent SYOWA.

勤務處: 東國大學校 講師 日本近代文學 (詩)

自宅住所: 139-051 서울特別市 蘆原區 月溪洞 925 大同APT 103-409

電話 ;02-6225-0655 018-255-5302

E-mail: sugyoono@hanmail.net

別紙

## 三好達治의 詩의 形成

The formation of the MIYOSI TATSUZI

K C I

발 표 자: 오 석 윤 (吳錫崙, O, Sug-yoon)

구두발표장소: 건양대학교

발 표 일: 2001. 10. 27(土)